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jang 3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choarha

재산공개로 국민분노 재확인
과거 청산안된 비리 반복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청문회를 대신하여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벌거벗음이 아주 긴 과장과 진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약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출당조처 혹은 사법처리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속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시 대통령의 용단은 대단해'라고. 그러나 우리는 또한 대통령의 교묘함에 한번더 대단함을 느낄 수 있다. 권력일반의 부패상을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 분노로 한정하여 부분을 제거함으로서 전체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의 술책이 바로 그 대단함의 모체인 것이다. 또한 박준규 국회의장을 비롯한 기타의 공격대상이 주로 민정계와 공화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배집단 내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정치적 포석입이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두번째 대단함의 의미이다.

보다 철저하게 공개하라! 그리하여 당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당신들 집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만방에 알려라!

요즈음 학내에서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총장님은 돈이 없으시단다. 총장님의 재산을 한번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

도 형 석
〈공대 산업공·4〉

자유로운 선전문화 보장돼야
포용력을 갖춘 학생회이길

우리는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광고란 단지 상품을 소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들을 설득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하고 있다. 학내에도 수많은 광고가 나 붙고 있다. 각 동아리의 신입생 모집 광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 광고 ….

개강을 한 후 친구들과 인사를 하기도 전에 처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학생회의 개강 인사 프랭카드이며, 학내 각 정치집단들의 시작을 알리는 수많은 대자보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물과 공기와 같이 되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흔하기에 가장 소중한 일상이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선전문화로 오염되고 있다.

약 1주일 전 모 단대의 벽에 학내 정치집단이 개강인사를 하는 프랭카드를 내걸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프랭카드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다. 그 프랭카드는 학생회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항의하러 간 사람들에게 학생회 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건물에 붙이는 선전물은 학생회에 통보를 하고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통보와 인준'이란 말조차 의아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통보를 한 후 다시 프랭카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것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찢기어 지고 말았다.

참 슬픈 현실이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번씩 일어나는, 그 예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이든 일반적인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학생들의 자치조합인 학생회가 학우들의 정치적 지향을 억누르고 있는 현실. 과연 우리는 수많은 반독재 투쟁에서 독재만을 배우고 만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단지 자신들과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 지향의 차이때문에 타인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이러한 오도된 민주주의가 앎의 요람인 학원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우리는 정권을 향해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등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은 그러한 말들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만 할 것이다. 공기와 물 같은 우리의 비판 의식이, 학우들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알리는 자유로운 선전 활동이 다수자에 의해 억눌린다면 이 무슨 답답한 일인가! 지금도 호시탐탐 타인들의 말을 막고 그럼으로서 학우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당부한다.

"조금 자중하시고, 타인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발!"

이 석 범
〈사회대 사회학·2〉

지리학 연구지침서 '형태변이론'

내가하는 공부

내가 지금하고 있는 공부는 나의 유학시절에 접하게 되어 크게 감명을 주었던 헤르만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 1886—1971)라고 하는 지리학자의 생애에 관한 연구와 그의 지지(地誌) "Korea와 지리적 형태변이론"의 번역이다.

라우텐자흐는 지리학의 핵심을 지역연구, 즉 지지로 보아 지지연구와 지지연구방법론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친 지리학자이다. 다른 지리학자들보다 내가 이 학자와 그의 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의 한국에 관한 지리집)를 수집하였다. 그의 참고 문헌 목록에 열거된 9백36권의 문헌은 순수지리학 문헌 이외에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동식물학, 지리상의 발견시대 이후에 한국을 여행한 모든 서양인들의 여행기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여행 이

김 종 규
〈문리대교수·지리〉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그의 저서 "Korea"는 서구어로 저술된 최초의 학문적인 지리서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서구어로 발간된 "McCune", "Bartz"등의 한국지지보다도 더 방대하고, 체계적인 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형태변이론은 지지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지연구의 지침서로서 매우 중요하다.

"Korea"는 독일어로 저술되고, 라이프찌히에서 인쇄되었으나 제2차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공습으로 인쇄된 책의 2/3가 소실되었다. 우리나라 지리학자들이 그 책의 명성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1988년에 영역본이 나오기 이전까지 지리학자나 지리학

지리학자 헤르만의 생애 연구
포루투갈·한국 비교지리학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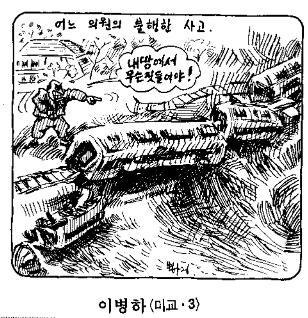
적 연구에 있다.

그가 "Korea"를 저술하게 된 동기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반도인 포르투갈의 지지를 저술한 후에 동쪽 끝에 위치한 한국을 비교지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이미 1933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 당시에 이용가능하였던 모든 교통수단과 도보로 백두산에서 한라산, 그리고 울릉도까지에 이르는 한국의 전지역 1만5천km를 여행하였고, 한국여행중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인내로 방대한 참고문헌(9백36권)과 자료(55권의 간행물 및 24권의 문헌목록과 지명색인, 24권의 지도후 그는 20여편의 한국에 관한 지리학논문을 저술한 이후에 1945년에 기념비적인 "Korea(부제:저자의 여행과 문헌에 기초한 지지, 1945, 본문 542p. 4장의 지도)"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지리학적 연구방법으로, 그는 지리학사에 남을 지리적 형태변이론을 발전시켰다.

라우텐자흐는 그의 한 논문에서 슐뤼터(Schlüter)라고 하는 유명한 지리학자에게서 강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문헌을 통해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라우텐자흐와 같은 유명한 학자가 아니지만 그가 표현했던 바와 같이 문헌을 통해서 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영역본이 나왔다고는 하나 이 책의 내용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아직 어렵다.

그리고 그의 저서 형태변이론은 우리 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그의 번역된 저서들을 통하여 지지연구의 방법론을 터득하고, 역사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저서들을 번역하고 있다. 또한 내가 그의 훌륭한 저서를 기초로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지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의 방법론 및 지지를 연구하고 있다.

독자초대석



이병하〈미교·3〉

교수동정

김상국교수 방영

【서울캠퍼스】 ▲장진(문리대·물리교수)=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세미나 참석차 중국방문 ▲강화자(의과대·의학교수)=오는 5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학회 참석차 벨기에 방문

【수원캠퍼스】 ▲김상국(체과대·체육)교수=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체조선수권대회 인솔차 영국 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허성웅(화학) ▲김소성(철학) ▲장영이(생물·3) ▲류이희(철학·2) ▲장여이(생물·3) ▲심수정(법·4) ▲김정선(무역·2) ▲김중훈(경영·4) ▲정규택(경영·2) ▲홍다영(미교·4) ▲박철영(의대) ▲이지현(한의본·1) ▲심우문(한의본·1) ▲송건호(한의·2) ▲박승미(한의본·1) ▲양제형(한의예·2) ▲최봉식(치대·총대) ▲이보영(약·2) ▲조정미(기악·4) ▲최문열(축구부) ▲오해연(삼의원·513) ▲장형욱(삼의원·323)

【수원캠퍼스】 ▲박진완(러시아·2) ▲임종철(무역·1) ▲손소리(회계·4) ▲김효준(경영·4) ▲박병용(경영·3) ▲강동호(환경·2) ▲이승제(유전공·4) ▲제세홍(기계·2) ▲유희정(토목·2) ▲박은수(화공) ▲여정석(기계공) ▲차승훈(산업공·3) ▲한백겸(전자공·3) ▲정주영(건축) ▲최윤호(화공) ▲박병철(원자력) ▲장석형(기계) ▲김구택(건축·2) ▲박찬봉(레이저) ▲박성규(전자·3)

알림터

▲김재혁(건축·2) ▲최호진(전자·2) ▲김영철(섬유) ▲이성렬(산업공) ▲박경원(전산·2) ▲임채경(전산·3) ▲이재일(산업공) ▲현대우(산업디자인·2) ▲신우석(농학과·4) ▲최성숙(조경·3) ▲진영미(식공·3) ▲하병천(임학·3) ▲정병기(체육학) ▲정을신(태권도) ▲박미현(기숙사 537호) ▲이재일(산업공) ▲현대우(산업대디자인·2) ▲신우석(농학과·4) ▲최성숙(조경·3) ▲진영미(식공·3) ▲하병천(임학·3) ▲정병기(체육학)

동문모임

과천고 동문회

【수원캠퍼스】 ▲천안 북일고=오늘 오후 4시30분 천안 엉클리 소고기 뷔페 ▲여수고=오는 6일 오후 5시30분 공대휴게실 ▲울산고=오는 6일 오후 5시30분 공대휴게실 ▲중경고=오는 6일 오후 5시 공대휴게실 ▲과천고=오는 7일 오후 6시 공대휴게실

동연 '한동아리'재발간

수원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오는 9일 동아리신문 '한동아리'를 재발행한다.

'한 동아리'지는 지난해까지의 동아리 신문의 내용과 성격을 쇄신하여 동아리들의 활동내용과 페니미즘등 교양지식들의 활동내용과 페니미즘등 교양지식들을 내용으로 하여 4면 타블로이드판으로 월간발행한다.

전자공학과 '로고스'발간

전자공학과 학생회는 오는 4월6일 학생회 소식지 '로고스'를 발간한다.

'로고스'지는 전자인의 단합과 대학생활의 풍요로움을 고취하고자 국판 4면 크기의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문예원고 학술원고등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투고를 기다린다.

朔風

수술을 기다리는 신한국

1993년의 한국사회는 신한국을 위한 캠페인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위로부터의 개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지론을 맹신하며 대통령에서 부터 강조와 강조를 거듭하는 일방통행식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세간에 화제와 파문을 던지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여론의 힘을 업고 도마위에 오른 맛있는 요릿감이 되고 있다.

시원하다, 너무하다, 믿어볼까 말까 각양각색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개혁의 신드롬은 하나의 사회윤리로서 강요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가는 것은 나만의 몽상일까.

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하면서도 광범위한 정치의 도술이라고 평하는 소수의 의견을 따르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한 논리에 의해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우침이 수반되는 자율성이 필요한 도덕률이라는 점이다.

논란이 되고있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치부 드러내기 보도를 보면 믿음과 동참이라는 허구의 일부분을 간파할 수 있다. 재산이 많네 적네 논란을 떠나 어쩔수 없이 공개해야만 하는 해바라기성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것이다. 어떠한 수법과 능력으로 치부한 재산인지는 몰라도 다분히 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기득권을 위한 또하나의 생명유지 수단으로 재산공개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은 가진자와 기득권자가 아닌 기층민중의 진정한 믿음과 의지를 공유할 때 만이 가능한 것이다. 탈당과 출당에 얼룩지고 있는 이번 파문의 현장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뿌리깊은 한국사회의 병리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볼수 있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선 이러한 개혁의 부르짖음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요 의무지만 개혁의 주체와 대상, 동기가 또다른 권력의 창출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면 지탄을 받아야하는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어느계파와 집단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환부'전체에 대한 대단위 처방으로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썩어가는 상처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상처보다 더 크게 환부를 들어내야하는 아픔이 뒤따르기때문이다. 즉, 언론·교육·경제·문화계등도 정치의 개혁과 맞물려 변화를 맞이 할때 만이 진정한 사회변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찌했든 시작되고 있는 개혁의 초반을 지켜보면 또한번 군사문화가 휩쓸고 간 국민기만의 술책으로 이번 캠페인이 도구화되지 않기만을 소망하면서 강요와 타율만을 통한 개혁추진이 진정한 '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되새겨본다.

또, 역사의 판단은 길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짚어보면서 오늘의 이러한 비판과 기우들이 노파심으로만 남기만을 기원해본다.

〈임초〉

동아출판사가 '멀티미디어 출판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출판물' 개발 성공!

'21세기 출판의 꽃'이라 불리는 멀티미디어 출판－동아출판사가 그 첫작품으로 「CD-ROM판 오성식 생활영어 SOS」를 개발, 미래의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를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우리 출판문화를 이끌어온 자부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세계수준을 능가하는 출판문화의 새 길을 열겠다는 신념으로－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출판 시대를 개막합니다.

'멀티미디어 新출판 혁명'－동아출판사가 주도합니다.

동아출판사는 유아·아동 지능개발과 언어학습 멀티미디어 출판물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출판, 교육, 문화, 정보,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TV나 컴퓨터를 통해 백과사전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출판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출판－그 역사적인 첫 출발을 동아출판사가 시작하고, 앞으로도 동아출판사가 주도해 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란 무엇인가?
MULTI(복합적인)+MEDIA(매체)의 뜻으로 문자, 음성,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의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CD-ROM, CD-I, 정보통신망 등의 새로운 미디어에 담아 전달하는 첨단 기법을 말합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출판물 제1호 탄생!
CD-ROM판 오성식 생활영어 SOS!

일평생 우리 한국인을 따라다니는 영어회화의 어려움을 완전 해결했습니다.

기존의 책, 테이프, 비디오 등의 일방주입식 방법과는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학습방법을 스스로 선택, 컴퓨터와 대화하듯이 영어회화를 배워나가는 인터액티브(Interactive) 방식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이 모두 지원되는 그야말로 '영어회화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대로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 생생한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
- 전과정을 낱말, 문장, 상황별로 Native Speaker의 발음으로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음.
- 사용자 목소리 녹음 후 원 발음과 비교기능
- 까다로운 축약형, 연음현상 청취 및 연습기능
- 단어, 숙어의 뜻을 즉시 알아보는 사전기능
- 즉석 해석·번역 기능
- 실전형 테스트 및 성적관리기능
- 학습횟수 체크, 책갈피 기능 등 차원높은 학습효과
- 학습도중 피로감 해소를 위한 음악감상실, 크로스 워드 등 100여가지 게임수록

개발·공급: 동아출판사 (861-4818)
판 매: 엘렉스 컴퓨터 (780-4545)

동아출판사
TEL: (02)861-4818